WHAT'S NEW
국가기록원 소식



정부대전청사 대강당과 야외에서 친구, 가족들과 함께 글짓기에 열중하고 있는 참가자들



행사장에 마련된 보드에 참가자들이 열심히 메시지를 적고 있다



백일장 시상식은 6월 17일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

'기록을 알면 세상이 보여요'

제2회 기록사랑 백일장 성황리에 열려

국가기록원(원장 정진철)은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기록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기록사랑 백일장'을 5월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운문, 산문, 포스터, 만화 등 4개 부문에 전국 초·중·고, 일반인(대학생 포함) 2800여 명이 참가하여 '생활속 기록이야기'라는 주제로 글과 그림 솜씨를 뽐냈다.

한편 이날 백일장이 가족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참가자가 모두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가훈 써주기, 포토 존, 대전시립교향악단 클래식 연주, 페이스페인팅, 기록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메시지 보드, 솜사탕 나눠주기 등의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대상작으로는 초등부문에서 이현지(대전와동초 6학년)의 산문 '몰래 본 엄마의 일기장', 중등부문에서 유시내(대전송촌중 2학년)의 산문 '가족사진집, 시간의 풍경', 일반부에서는 이윤재씨(대전와동초 교사)의 산문 '제자의 불만'이 선정됐다. 또한 포스터부문에서는 김수진(대전두리초 6학년), 만화부문에서는 이상희(대전신일여고 3학년)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날 봉안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운데 오른쪽)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왼쪽)이 참석했다.

조선왕조실록 봉안의식, 국가기록 봉안의식으로 복원

국가기록원은 지난 4월 23일, 성남시 판교 소재 나라기록관 개관행사에서 조선왕조실록 봉안의식 재현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기록관리 선진국의 시설을 벤치마킹한 최첨단 기록관리 시설인 나라기록관(관장 이상근)은 조선시대 춘추관(春秋館) 사고(史庫)를 계승하고 있으며, 국가기록 봉안의식 재현은 나라기록관 개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 봉안의식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되었다.

- 실록을 붉은 삼베에 싸서 실록함에 넣는 봉안식(封安式), 실록함을 실록운반용 가마에 싣는 채여식(彩輿式), 궁궐에서 실록을 임시 내려놓고 국왕을 향하여 절을 올리는 배례식(拜禮式), 춘추관사고에 실록함을 봉안하고 봉인(封印)하는 봉안식(奉安式)의 순서로 이어졌다.
- 조선시대의 실록 봉안행렬은 의금부도사가 직접 말을 타고 기마병과 함께 호위하였으며,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각종 깃발을 든 의장대와 고취대, 실록 채여와 호송군사, 실록편찬 총책임자인 총재관(전 · 현임 영의정 2명으로 구성)과 사관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 실록함에는 벌레와 균을 막는 약재인 천궁(川芎)과 방향(芳香)을 위해 창포(菖蒲)를 넣었다는 것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번 국가기록 봉안의식은 500여 년의 기록관리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자는 취지로 헌법, 대통령기록, 국무회의록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록물을 조선왕조실록 봉안의식 절차에 따라 나라기록관에 입고했다.

국가기록 봉안의식에서 기록관리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재관(봉안사) 역할을 하며, 원장 등 국가기록원 임직원 50여 명이 사관단을 맡았다. 봉안행렬은 기수단, 전통의장대, 고취대, 채여, 사관단 등으로 구성되며, 홍단령, 청단령 등 각자의 역할에 맡는 전통복식을 착용한 150여 명이 행렬을 구성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국가기록 봉안의식은 배례식과 봉안식 위주로 거행되는데, 봉안행렬이 무대에 도착하면, 사관이 봉안함을 봉안단에 안치하며 총재관(장관)이 국가사직에 나라기록관 개관을 아뢰는 고유문을 낭독하고 사관단 전체가 4배의 예를 올린 후, 나라기록관에 봉안함을 입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 봉안의식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관리 전통과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향후 연구자, 시민 등이 각종 시설 및 소장자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WHAT'S NEW
국가기록원 소식

●◎
중앙부처 기록관리 담당자 간담회 개최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간담회』를 6월 13일 성남시 소재 나라기록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전국 38개 중앙부처 기록관리 주무팀장과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기록관리 부처전담제 운영방안' 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수집 · 평가 기능을 일원화하여 사회기록, 경제기록, 특수기록 3부분으로 나누어 부처전담제를 실시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각 부처담당자와 중앙부처 기록관리 담당자들이 변경된 기록물관리방식을 공유하며, 상호 일체감을 조성해 현장중심의 효율적 부처전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사회기록, 경제기록, 특수기록으로 나누어 부처전담제를 운영하는 목적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의 설명과 함께, 부처전담제 운영개선사항,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가 기록관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방식과 정책개선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기록원 부처별 담당자와 중앙부처 기록관리 담당자들 간의 분임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
제2회 기록관리 포럼 개최

국가기록원은 『제2회 기록관리포럼』을 지난 6월 27일 성남시 소재 나라기록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뉴 패러다임, 웹 아카이빙-웹 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포럼은 전국의 기록관리 담당공무원과 학계의 기록관리 연구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에서는 신라대 문헌정보학과 서혜란 교수가 '웹 기록의 아카이빙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 윤준희씨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웹기록 이관 및 서비스 현황과 과제'에 대해, 국가기록원 기록정보화과 박영환씨가 '통 · 폐합부처 웹기록 이관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기록관리 종사자 및 연구자들의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이소연 교수와 상명대 소프트웨어학부 송병호 교수,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전달주씨,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총괄실장이 참여해 종합토론도 펼쳤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기록문화의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웹 기록에 대해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며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포럼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기록관리 포럼은 기록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와 기록학계 연구자들간의 연구 성

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되는 자리로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지난 3월 28일 '기록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의 주제를 가지고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나라기록관 · 대통령기록관으로 견학 오세요

국가기록원은 국민들의 기록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학생들이 기록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4. 23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나라기록관과 대통령기록관의 시설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견학프로그램은 '기록관 견학프로그램'과 '전시관 견학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기록관 견학프로그램'은 서고, 보존·복원 작업실, 기록관 등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기본코스, 실무코스, 전문코스, 맞춤형코스 등으로 운영하며, 자신이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여 견학 할 수 있다.
- '전시관 견학프로그램'은 국가 중요기록물을 시대순으로 전시하여 기록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기록전시관과 대통령기록물을 역대대통령별로 전시하여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대통령기록전시관을 관람하게 된다. 특히, 전시관 견학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쉬는 토요일에도 개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31-750-2033 / 031-750-2222

6 · 3항쟁관련 학술세미나와 기증기록물 전시회도 열어

국가기록원은 6 · 3항쟁에 관한 민간기록을 발굴하여 정부기록과 함께 후대 기록유산으로 영구보존한다고 밝혔다.

6 · 3항쟁은 1964년 3월 24일부터 한일회담 저지를 위해 전개된 시위운동으로 4.19이후 1960년대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이다. 이번에 국가에 기증된 민간기록은 6 · 3항쟁에 참여하였던 송철원씨와 그의 부친인 송상근씨가 작성했거나 수집한 것으로 총 40여종 약 1만매 분량이다.

현재까지 6 · 3항쟁에 관한 기록은 검찰청 등 정부기관에서 작성한 판결문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에 기증된 기록은 6 · 3항쟁 주역들이 작성한 자신들의 주장과 활동, 그 가족들이 작성한 눈물겨운 옥중 뒷바라지 등에 관한 생생한 사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을 균형있는 시각에서 규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 보존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중앙청사 별관(외교통상부 건물) 국제회의장에서 '6 · 3항쟁, 그 날의 기억과 기록'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와 기증기록 전시회를 5월 29일 개최했다.



중앙청사에서 열린 6 · 3항쟁 학술세미나(왼쪽)와 기증기록물의 전시회

기증된 기록들은 성남소재 나라기록관에 영구 보존 될것이며, 검찰청 등에서 이관한 판결문 등 정부기록들과 함께 민간에 공개 될 예정이다.

WHAT'S NEW
국가기록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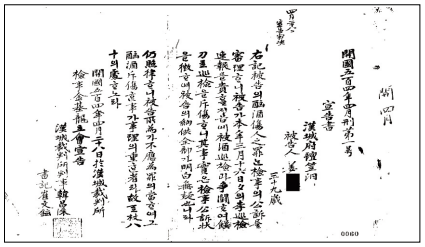
이달의 기록

국가기록원은 기록문화 확산 및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 달의 기록' 코너를 신설하여, 매월 해당 시기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주요 기록물을 선정하여 역사적 해설과 함께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코너는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볼 수 있다.

4월의 기록

대한제국기 최초의 형사판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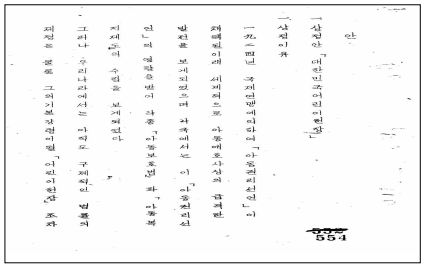


開國五百四年四月刑第一號, 강○○, 1895년 4월 28일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근대법제 도입 이후 최초의 형사판결문(1895년 4월 28일)으로, '개국 504년 4월 형제1호(開國五百四年四月 刑第一號)'로 시작하고 있는 판결문은 피고 강○○에게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장(杖 ; 곤장) 80대를 선고하였다. 1895년 3월 16일 저녁, 한성부(漢城府)에 사는 강○○가 술에 취해 순검(巡檢)을 찬도(饌刀;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고서(宣告書)는 검사의 공소장을 근거로 1895년 4월 28일 한성재판소에서 판사 한창수(韓昌洙)에 의해 검사 김기룡(金基龍)의 입회 선고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법의 날'은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 '법의 날에 관한 건'의 제정·공포를 통해 5월 1일로 정해져 1965년 5월 1일 시민회관에서 첫 기념식을 가졌다.

5월의 기록

단기4290년 국무회의상정안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1957년 생산된 「국무회의상정안(대한민국 어린이헌장)」으로, 보건사회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1957년 『제40회 국무회의 상정안건철』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정이유,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전문 및 어린이헌장 제정경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헌장은 1957년 아동복리법안 제정에 따라 보사부가 한국동화작가협회에 초안을 의뢰하여 7명의 기초위원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심의를 거쳐 1957년 제33회 어린이날을 맞아 내무·법무·문교·보건사회부 장관 명의로 공포되었다. 1922년 5월 1일 천도교소년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어린이날을 선포한 데서 비롯된 어린이날의 제정은 어린이를 식민지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6월의 기록

전두환대통령 88올림픽고속도로 개통행사 참석사진



1984년 6월 27일 개통한 '88올림픽고속도' 개통행사 관련 사진으로 고속도로 개통행사 중 8쌍의 '영·호남 신랑신부 합동결혼식' 행사 모습이다. 12·12사태, 5·18 민주화운동 등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탄생된 제5공화국은 정권 초기 권력의 정통성 확보, 영호남 사이의 지역감정 해소와 88올림픽 유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88올림픽고속도로'이다. 1981에 착공하여 1984년 개통된 '88올림픽 고속도로'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2차선 고속도로이다. 1984년 6월 27일 열렸던 준공식을 위해 정부는 일주일 동안 대구와 광주를 비롯한 고속도로 주변과 방송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축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화합', '민족적 화해' 등과 같은 정치적 언어들이 동원되고, '영호남간의 합동결혼식'(8쌍) 같은 행사를 통해 정치적 상징을 강화시켰다.